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워크숍

민혜리*

교수학습센터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에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실상을 살펴보면 이들의 전문성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따라서 교수학습센터의 학내 교육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과 이를 통한 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중 최대 규모와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런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2007년 1월 중에 두 차례 실시하게 되었다.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워크숍은 강의 자문에 필요한 이론은 물론 실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론과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분석해보는 한편, 동료 참가자와 강의 분석 기법이나 효과에 대해 토의해봄으로써 강의 분석에 필요한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자원부 연구교수

프로그램 소개

1차 '강의 촬영 및 분석 워크숍'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1차 워크숍은 2007년 1월 8일(월)과 9일(화)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에서 진행되었다. 교수법 분야에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미국 미시간공과대학교 조벽 교수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조벽 교수는 다년간의 강의 분석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특강과 실무 훈련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조벽 교수 외에도 민혜리 연구교수(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희원 연구교수(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김경이 연구교수(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실습과 전문가 경험 나누기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첫날은 강의 분석에 대한 자세, 강의 분석의 기본 기법 등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들은 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강의를 촬영하고 다 같이 촬영한 강의 동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보다 심화된 분석을 위해 그룹별로 전날 촬영한 강의에 대해 자문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강의 분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강의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전달하였다.

2차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 분석'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워크숍은 2007년 1월 16(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17호 워크숍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의 주제는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 분석'으로, 손우정 교수(부산대학교)의 특강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배움의 공동체 등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배움을 중심으로 수업을 분석하는 기법을 익히고, 피드백을 공유하였다.

1차 및 2차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워크숍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강의분석전문가 양성 과정 1차 워크숍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월 8일 (월)	Introduction(9:00~9:30)	워크숍 일정안내 및 교육 목표 소개
	Session I (9:30~10:30)	자문준비와 절차 -자문가의 기본자세 -자문 준비 단계
	Session II (10:30~12:00)	관찰 기술 1 -강의 관찰을 위한 기본 테크닉
	Session III (13:00~14:50)	발표와 관찰 1 비디오 촬영과 피드백
	Session IV (15:00~16:00)	관찰 기술 2 상담 전문가의 경험 나누기
1월 9일 (화)	Session V (16:10~18:00)	발표와 관찰 2 비디오 촬영과 피드백
	Session VI (9:00~10:00)	자문 기술 -비디오 자문의 기본 원칙
	Session VII (10:00~12:00)	자문 연습 1 그룹 비디오 자문 실습
	Session VII (13:00~14:00)	자문 기술 2 상담 전문가의 경험 나누기
	Session IX (14:00~16:00)	자문 연습 2 그룹 비디오 자문 실습
	Session X (16:00~18:00)	자문 기술 3 및 마무리 -토의 및 워크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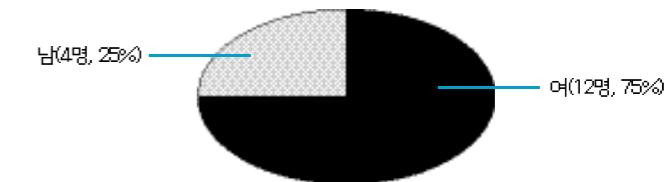
강의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2차 워크숍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월 16일 (화)	Session I (10:00~12:00)	이론적 이해 -배움의 재개념화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수업 연구
	Session II (13:00~15:00)	수업 연구의 기술 및 사례 분석 - 절차와 방법
	Session III (15:10~17:00)	실습 - 수업 사례 연구 실습
	Session IV (17:10~17:30)	종합토론 - 배움의 공동체 이론과 실습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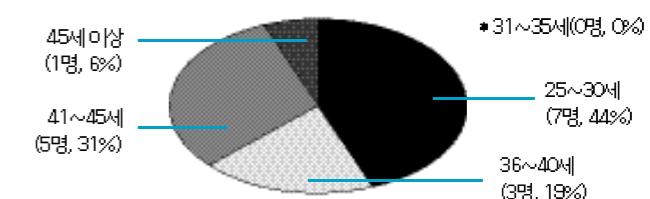
참가자 설문 분석

참여자 배경(총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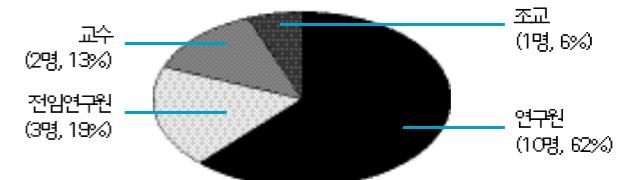
1. 성별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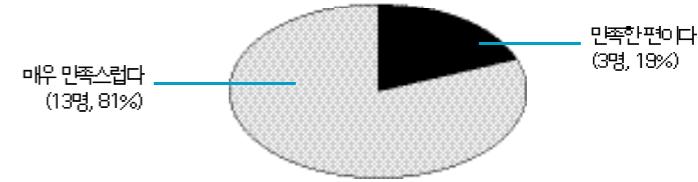


3. 직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 이 프로그램은 '강의'와 '실습', '논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모두 적합했습니다. 집중 워크숍으로 2일 동안 진행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율로 어려웠습니다. (4)

—실습이 보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시간 관계상 실습을 많이 했는데 강의와 논의도 중요하므로 시간이 많다면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그렇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워크숍 참여 인원을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매 단계별 과정마다 시유를 정도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실습 내용에 대한 코멘트, 장단점을 더 자세히 다루었으면 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인턴 워크숍을 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

—첫날에는 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가령 저녁 시간간격이라도 20~30분 늘리면 참여자를 간의 친목 도모에도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3)

—논의할 때 서로 얼굴을 보며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가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하후 종을 진행하다 보니 좀 지루한 느낌이 들었지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강의 주제가 다양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제를 축약해주시면 더 나은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 전에 강의 내용을 읽어 오도록 하는 것이 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읽을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습을 최소한 1회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후 수정해서 적용해볼 기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설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느꼈습니다. 14~20명이면 12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배울 수는 있었으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담 전문가 4명의 Tip이 달라서 유용한 측면도 있었으나, 동일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나온 경우 다소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강사 외 3명의 전문가 또는 서울대 CTL의 Tip도 소개자료나 발표 형식이라도 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안에 다루기에는 조금 많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분량을 3일 정도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상담 실습 내용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요?

—실무 경험 후 advanced 과정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전파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직접 참여한 실습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속박이 곤란한 경우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

1. 이 과정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16명, 100%).

1-1. 위와 같이 답변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강의 분석의 구체적 방법을 실습할 기회를 가지 수 있었다.

—한사장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상담할 기초가 마련

되었습니다.

—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수님

과 관련한 이런 워크숍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신이 업무 분야의 실제 기술과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2)

— 워크숍 초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고 갑니다.

—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
회와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

—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을 더 발전시키고
실용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 꾸준히 알고 있고, 기본 마음가짐, 열의가 있던 상황에서 이론과 실
습으로 집중 훈련을 받은 후써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망이 생겼
습니다.

— 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을 체우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
게 되었습니다.

— 매우 유용한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론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능력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강의 분석시 중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상당
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보지만
강의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이론뿐 아니라 실습이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고 강의 촬영 분석 서비
스 경험 노하우를 들려주셔서 좋았습니다.

— 몰랐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향후 워크숍에 대한 제안

강의 분석 전문가 워크숍은 특성상 실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수
참가자에 한정하였다. 1차와 2차 워크숍에 각각 16명과 10명의 교수학습센터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 힘든 부분도
있었으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으며 만족스러워하였다.
특히, 강의 분석에 관련된 지식과 기법을 모두 배울 수 있었으며, 강의 분석자로
서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
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수학습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